

찾아가는 다문화이해교육 개선 방안 연구

- 부산시 초등학교 교사 대상
만족도 조사를 중심으로 -

김혜빈 · 김남희

(부산외국어대학교)

《목 차》

1. 서론
 - 1.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1.2. 선행 연구
2. 이론적 배경
 - 2.1. 다문화교육과 다문화이해교육
 - 2.2. 부산광역시교육청의 다문화교육
3. 연구 방법
 - 3.1. 연구 설계 및 절차
 - 3.2. 자료 수집
 - 3.3. 자료 처리
4. 연구 결과
 - 4.1. 학년 수준을 고려한 체계적인 교육과정 필요
 - 4.2. 장기적 관점에서의 지속적인 다문화이해교육 필요
 - 4.3. 교사의 다문화역량 제고 필요
5. 결론 및 제언

<Abstract>

Kim, hye-bin, Kim, nam-hee. 2020. 12. 27. A Study on the Improvement Plan for Multicultural Understanding Education.

Multi-cultural Society and Education Studies 07, 29-50.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an improvement plan based on the satisfaction survey for teachers of multicultural understanding education visiting Busan. Data collection was conducted through a questionnaire survey by the homeroom teacher after conducting multicultural understanding education to be visited in 2019. The improvement plan accordingly is as follows. First, a systematic curriculum that considers grade level is necessary. Second, continuous multicultural understanding education is needed from a long-term perspective. Third, it is necessary to improve teachers' multicultural capabilities. **(Busan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Key words] Multiculture, Multicultural Society, Multicultural Education, Multicultural awareness, Multicultural competence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본 연구는 부산시 찾아가는 다문화이해교육의 교사 대상 만족도 조사를 바탕으로 다문화이해교육의 개선 방안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는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과 함께하는 교사의 입장에서 제시한 찾아가는 다문화이해교육에 대한 개선점을 살펴보고, 이를 다문화이해교육 강사의 관점에서 적용 가능한 사항들을 제안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이를 통해 교사와 다문화이해교육 강사 간의 의견을 절충하고 수업 진행에 있어 개선해야 할 사항에 대한 협의점을 도출하는 데 기초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전까지 학교에서 시행되어 온 다문화교육은 다문화가정자녀의 학교 부적응에 초점을 두고, 교육의 대상을 다문화가정자녀로 한정 짓는 소수자 교육의 성격이 강하였다(김창근 외 2016: 1). 그러나 현재 교육부의 정책은 교육의 방향을 다문화가정자녀를 포함한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다수자 교육을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래 사회를 준비하는 다문화교육은 문화 이해 교육이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교육뿐만 아니라 다문화 감수성 향상을 통해 사회의 ‘다름’에 대한 존중을 배우고 다름이 배제의 조건이 아닌 ‘소통’의 바탕으로 삼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김창근 외 2016: 2).

그러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다문화교육은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임에도 불구하고 다문화이해교육 강사를 양성하는 과정이나, 학교 현장에서 수업하는 내용 등은 기관이나 강사의 역량에 따라 다르다(김남희·김혜빈 2020: 3). 이에 따라 실제 다문화이해교육 강사가 진행한 수업 내용을 바탕으로 초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만족도 조사를 통해 찾아가는 다문화이해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1.2. 선행 연구

선행 연구에서는 다문화이해교육의 개선 방향과 관련된 연구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최우인(2012)은 다문화교육의 현황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다문화교육은 단순히 정보 또는 지식을 습득하는 차원이 아니라, 학교에서 교육과정과 학습 양식으로 접근하여 감성교육의 관점에서 다루어져야 한다고 보았다. 또한 정책연구학교와 거점학교를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는 다문화이해교육을 모든 학교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최영준(2018)은 다문화교육 정책의 변화를 점검하고 이에 따른

개선 방안을 도출하였다. 다문화 배경의 이주민자녀에게 국한된 다문화교육을 일반 학급 학생에게도 확대하여야 하며, 다문화교육의 대상과 내용이 명문화되어 법 조항에 적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다문화교육 지원 입법을 통해 교육부 중심의 다문화교육 체계화를 제안하였다.

은지용(2020)은 한국과 미국의 다문화교육 정책을 비교하고 이에 따른 한국의 다문화교육 지원 정책에 대한 개선점을 제안하였다. 정부 차원에서 실효성 있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하며, 다문화학생의 정체성을 상호 공존과 소통, 인권의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처럼 선행 연구 검토 결과 주로 다문화교육 지원 정책의 개선점이나 다문화이해교육의 실시에 관한 개선점이 도출되었다. 그러나 다문화이해교육의 실질적인 수업 내용에 관한 연구나 제안은 부족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다문화이해교육의 수업 내용에 관한 교사의 강사에 대한 평가는 다문화이해교육 개선 방향의 형성에 있어 유용한 기초 자료가 될 것이다.

2. 이론적 배경

2.1. 다문화교육과 다문화이해교육

여러 학자들의 다문화교육에 대한 정의를 보았을 때, 공통적으로 문화 다양성을 기반으로 하여 이러한 다양성에 구애받지 않는 평등한 교육을 포함하고 있다. Banks(2016: 15)는 다문화교육이 모든 학생들이 그들의 성, 성적 지향, 사회계층, 민족적·인종적·문화적 특징에 구애받지 않고 동등한 배움의 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생각이 담긴 교육이라고 정의하였다. Gollnic&Chin(2012: 21)은 다

문화교육을 학교 환경에 문화다양성, 평등, 사회정의, 민주주의의 개념을 접목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으며, 학생의 다양성과 교육에서의 평등을 통합한 개념이라고 보았다. 장인실(2006: 29)은 다양한 문화집단의 사람들에 대한 상호이해와 평등한 관계를 중시하고, 학생들이 편견을 줄이고 다양한 문화를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하기 위한 지식, 태도, 가치에 대한 교육이라고 정의하였다.

교육부는 2020년 다문화교육 지원계획에서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성숙한 교육환경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그와 관련된 추진 과제로 ‘다양성이 공존하는 학교 환경 조성’을 통해 전체 학교의 다문화교육을 확대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¹⁾ 2020년 다문화교육 지원계획에서는 ‘다문화교육’을 다문화학생을 위한 맞춤형 교육과 다문화 수용성 제고를 위한 전체 학생 대상 교육을 모두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다. 그중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 교육과정을 통해 진행되는 교육을 ‘다문화이해교육’으로 지칭하고 있다(교육부 2020: 17).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018)에서는 다문화이해교육을 ‘다문화학생과 일반학생이 다름을 존중하고 어울려 살 수 있도록 학교 교육과정을 통해 실시하는 다문화 감수성, 다문화 이해, 반편견 교육’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법무부의 외국인정책 기본계획과 교육부의 다문화교육 지원계획에서 사용하는 용어인 ‘다문화이해교육’을 사용하고자 한다. 이는 학교에서 다수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다문화교육을 말하며, 사회 전반에 걸친 다양성과 평등을 포함하고 있는 다수자와 소수자 모두를 위한 다문화교육을 지칭한다(김혜빈 2020: 10).

1) 교육부는 학교 구성원의 다문화 감수성 제고를 위하여 연간 2시간 이상 다문화교육 관련 교과·비교과 활동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에는 다양한 배경 등을 이유로 차별하는 행동은 인권침해가 될 수 있다는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다(교육부 2020: 17).

2.2. 부산광역시교육청의 다문화교육

2020년 부산광역시 다문화가족지원사업에 따르면, 부산광역시교육청은 다문화학생 맞춤형 교육으로 공교육 진입 및 적응력 향상과 상호문화교육 활성화로 교육공동체의 다문화감수성 및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추진목표로 하고 있다.

다문화가정자녀를 위한 맞춤형 교육으로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교육지원의 기반을 공고화하기 위해 다문화 원스톱 지원 서비스²⁾, 다봄번역 서비스³⁾ 등을 실시하여 언어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을 지원한다. 또한 다문화학생 학부모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부산다문화교육지원센터의 교육 지원 역할을 강화하였다(김혜숙 2020: 35).

상호문화 교육을 위해서는 부산다문화교육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다문화교육을 전문적으로 지원한다. 부산시의 다문화교육지원계획에 따르면, 특히 맞춤 교육 서비스에서 ‘찾아가는 다문화이해교육’을 실시하여 전문 강사의 수업을 통해 다문화감수성 함양을 위한 학급 단위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부산광역시교육청은 모든 초등학교에서 연간 2시간 이상의 다문화이해교육을 해야 함을 지침에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학교별, 학급별로 실시함에 있어 어려움이 따르며, 담임교사가 진행하기 어려울 경우 다문화이해교육을 신청하여 강사를 지원받아 운영한다(김창근 외 2016: 3).

이처럼 부산광역시교육청은 다문화교육 지원을 크게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맞춤형 교육, 다수자를 위한 다문화이해교육으로 나누어 지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찾아가는 다문화

2) 다문화 원스톱 지원 서비스 : 중도입국학생, 외국인학생(난민) 대상 편입학 상담 지원 프로그램

3) 다봄번역 서비스 : 부산국제교류재단에서 협력하여 지원하는 다문화가정 학부모와 학교의 의사소통 및 정보교류를 위한 모국어 번역 서비스

이해교육' 을 진행하고 이에 따른 개선 사항을 살펴보고자 하므로, 다수자 교육인 다문화이해교육에 중점을 두고 살펴볼 것이다.

3. 연구 방법

3.1. 연구 설계 및 절차

본 연구의 목적은 부산시 찾아가는 다문화이해교육의 교사 대상 만족도 조사를 바탕으로, 찾아가는 다문화이해교육의 개선 방안을 연구하기 위해 설계되었다.

부산시 찾아가는 다문화이해교육은 1·2학년, 3·4학년, 5·6학년 별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1·2학년의 경우 '다문화'에 대한 개념이 무엇인지 모르는 학생들이 많아, 다문화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다름', '틀림'과 같은 단어를 사용하며 다문화가 무엇인지 알려주도록 수업을 구성하였다. 다문화이해교육의 학습 목표는 “'다르다'와 '틀리다'의 개념을 알고, 친구와 다른 점을 찾아 다름이 잘못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이다. 활동은 퀴즈를 통해 '다름'과 '틀림'을 맞추는 활동을 하고, 조별활동으로 같은 질문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다른 답변이 나오는 것을 통해 답변이 다른 것이 당연한 것임을 인지하는 활동을 한다.

3·4학년의 경우 다문화에 대한 인식이 '외국인', '다문화가정', '다른 나라' 등으로 생각하고 있어, 활동을 통해 다문화가 '다른 나라'에 국한된 것이 아님을 알려주는 것으로 수업을 구성하였다. 학습 목표는 “문화와 다문화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다문화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깰 수 있다.”이다. 활동으로는 다문화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고, 마인드맵을 그려보고 다문화 빙고 게임을 통해 다문화가 '다른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학생들 스스로 편견을 인지하는 활동을 한다.

5·6학년 수업도 3·4학년 수업과 같이 ‘다문화’에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다문화의 의미를 설명하고, 리본 게임과 역할극을 통해 차별을 간접 경험함으로써 차별의 잘못된 점을 스스로 알 수 있게 수업을 구성하였다. 학습 목표는 “문화와 다문화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게임을 통해 반차별을 알 수 있다.”이다. 활동으로는 문화와 다문화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려주고, 리본 게임을 진행한다. 리본 게임은 두 명이 게임에 참여시켜 한 명은 어렵고, 한 명은 쉬운 게임을 제공하여 차별을 겪게 함으로써, 불평등에서 오는 차별을 간접 경험하게 하는 활동이다. 리본 게임이 끝나고 나면, 진입금지 역할극을 통해 ‘미국에 간 한국 사람’과 ‘한국에 온 베트남 사람’으로 구분하여, 차별을 당하는 것과 차별당하는 사람을 도와주는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차별을 몸소 체험할 수 있도록 하였다. 부산시 찾아가는 다문화이해교육 학년별 수업을 정리 하면 <표 1>과 같다.

<표 1 부산시 찾아가는 다문화이해교육 학년별 수업>

1·2 학년	학습 목표	‘다르다’와 ‘틀리다’의 개념을 알고, 친구와 다른 점을 찾아 다름이 잘못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활동	- 퀴즈를 통한 ‘다름’과 ‘틀림’알기 - 나와 친구의 다른 점 찾기(인터뷰 활동)
3·4 학년	학습 목표	문화와 다문화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다문화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깰 수 있다.
	활동	- 다문화 마인드맵 그려보기 - 다문화 빙고 게임
5·6 학년	학습 목표	문화와 다문화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게임을 통해 반차별을 알 수 있다.
	활동	- 리본 게임 - 진입금지 게임

본 연구에서는 <표 1>과 같이 찾아가는 다문화이해교육 수업을 진행하고, 수업이 끝난 후 담임교사들에게 설문지 문항으로 만족도 조사를 하였다. 설문지는 객관식 문항 5개와, 서술식 문항 3개로 구성을 하였다. 객관식 문항의 경우 필수 문항으로 설정하였으며, 서술식 문항은 선택 문항으로 설정하였다. 객관식 문항의 경우 5점 리커트 척도로 하였으며, ‘다문화 수용성 향상 정도, 강사 열의, 수업 내용의 적절성, 수업 진행 과정, 프로그램 추천’을 세부항목으로 정하여 문항을 구성하였다. 서술식 문항은 찾아가는 다문화이해교육의 좋았던 점과 수정 및 보완점, 기타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설문 문항은 <표 2>와 같다.

<표 2 찾아가는 다문화이해교육 만족도 설문 문항>

문항 종류	세부항목
객 관 식	1. 찾아가는 다문화이해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다문화 수용성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
	2. 강사는 열의를 갖고 열심히 수업을 하였다.
	3. 다문화이해교육을 위한 수업 내용으로 적절했다.
	4. 찾아가는 다문화이해교육 진행 과정은 만족스러웠다.
	5. 다른 사람들에게 본 프로그램 이용을 권하고 싶다.
서 술 식	1. 찾아가는 다문화이해교육에서 좋았던 점은 무엇입니까?
	2. 찾아가는 다문화이해교육에서 부족했거나 수정·보완할 점은 무엇입니까?
	3. 기타 의견

본 연구에서는 필수 문항인 객관식 문항을 일차적으로 검토하고, 담임교사들의 의견을 상세히 알 수 있는 서술식 문항을 중심으

로 분석하고자 한다.

3.2. 자료 수집

본 연구에서 수집한 자료의 표본은 2019년 부산시 찾아가는 다문화이해교육에 참여했던 초등학교의 담임교사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설문 조사에 참여한 학교는 총 15곳의 학교이다. 설문 조사는 학년별(1학년 담임교사 14명, 2학년 담임교사 18명, 3학년 담임교사 13명, 4학년 담임교사 23명, 5학년 담임교사 9명, 6학년 담임교사 10명) 담임교사로 총 87명이 참여하였다. 조사는 일대일 대면으로 이루어졌고,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조사 기간은 2019년 4월 1일 ~ 2019년 11월 30일로, 약 8달에 걸쳐 부산의 초등학교 현장에 방문하여 설문 조사를 진행하였다.

설문지는 세부항목별 평가 기준 5개의 객관식 문항과 3개의 서술식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3.3. 자료 처리

3.3.1. 객관식 문항 응답 결과

설문 조사의 객관식 문항 응답 결과는 <표 3>과 같다. 다문화 수용성 향상 정도에서는 ‘매우 그렇다’가 86명(98.9%)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렇다’ 1명(1.1%) 응답하였다. 강사 열의, 수업 내용의 적절성, 수업 진행 과정 만족에서는 모두 ‘매우 그렇다’ 87명(100%)으로 응답하였다. 프로그램 추천에서는 ‘매우 그렇다’가 84명(96.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렇다’는 3명(3.4%) 응답하였다.

<표 3 객관식 문항 응답 결과>

문항		N	%
다문화 수용성 향상 정도	매우 그렇다	86	98.9
	그렇다	1	1.1
	보통이다	0	0
	그렇지 않다	0	0
	전혀 그렇지 않다	0	0
강사 열의	매우 그렇다	87	100
	그렇다	0	0
	보통이다	0	0
	그렇지 않다	0	0
	전혀 그렇지 않다	0	0
수업 내용의 적절성	매우 그렇다	87	100
	그렇다	0	0
	보통이다	0	0
	그렇지 않다	0	0
	전혀 그렇지 않다	0	0
수업 진행 과정	매우 그렇다	87	100
	그렇다	0	0
	보통이다	0	0
	그렇지 않다	0	0
	전혀 그렇지 않다	0	0
프로그램 추천	매우 그렇다	84	96.6
	그렇다	3	3.4
	보통이다	0	0
	그렇지 않다	0	0
	전혀 그렇지 않다	0	0

3.3.2. 서술식 문항 응답 결과

서술식 문항은 선택 문항으로 서술식 문항에 응답한 담임교사는 만족도 설문 조사에 참여한 87명의 교사 중 58명이었다. 찾아가는 다문화이해교육의 경우, 1·2학년, 3·4학년, 5·6학년으로 구분하여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어 서술식 문항 응답 결과를 세 분류의 학년별로 나누어 응답 결과를 정리하였다. 비슷한 의견은 하나의 의견으로 취합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 서술식 문항 응답 결과>

세부 항목	학년	응답 결과
좋았던 점	1·2학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르다’ 와 ‘틀리다’ 의 개념을 쉽게 설명하였다. - 다문화에 대한 아동 눈높이 교육이었다. - 친구들과의 다른 점을 이해, 배려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배우는 기회가 되었다. - ‘다르다’ 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님을 알았다. - 한 나라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다문화이해 수업이었다.
	3·4학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놀이(게임, 상황극)를 통해 문화에 대해 차별을 직접 느껴봄으로써 아동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었다. - 여러 교구를 가져와서 흥미로웠다. - PPT를 활용하여 아이들 눈높이에 맞는 설명과 질문을 하였다. - 외국인이 아닌 한국인 강사의 수업으로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교육이 이루어졌다. - 학생들에게 다문화에 대해 다양한 방법으로 이해시키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 다문화의 의미는 다른 나라 문화라는 편견이 있었는데 다문화의 의미를 학생들이 폭넓게 이해할 수 있었다.

	5·6 학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는 외국인이 있는 가정의 문화라는 생각에서 모든 가정의 삶이 다르고 문화가 다름으로 모두가 다문화라는 생각을 갖게 해줘서 좋았다. - 다문화의 의미를 포괄적으로 보고 접근하는 방식이 신선했다. - 게임을 통해 스스로 차이와 차별을 깨닫게 해주어 좋았다. - 보다 수준 높은 다문화 수업을 받을 수 있었다. - 역할극을 통해 간접경험을 할 수 있어 좋았다.
수정 · 보완 할 점	1·2 학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학년 학생들의 경우 한글 미해득 학생이 있어 그림을 활용한 활동지가 되었으면 좋겠다. - 수업 내용이 전이될 수 있도록 하기에 시간이 부족하다.
	3·4 학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 ‘다문화’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수업이므로, 시간이 된다면 ‘다문화’의 예(인물, 의상 등)가 될 수 있는 자료를 활용했으면 좋겠다. - 다문화에 대해 더 자세히 알 수 있는 활동들로 구성되면 좋을 것 같다. - 아이들이 활동하는 데 시간이 부족하다.
	5·6 학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와 관련한 실제 문제사례를 뉴스 등으로 제시함으로써 학생들에게 문제의식(수업동기)을 심어주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
기타 의견	1·2 학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른 문화권’의 문화센터를 탐방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 시간을 나누어 1시간은 다문화(특정한 나라의 의상, 음식, 놀이 등) 수업을 경험하면 좋겠다. - 저학년이라 다문화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었으나, 적절한 예시와 교육으로 아이들의 이해가 되었다.
	3·4 학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게임과 생생한 체험, 프로그램을 좀 더 추가해서 활력 있는 수업이 되면 좋겠다.

5·6 학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그램을 더 만들어서 자주 왔으면 좋겠다. - 수업 진행의 변수를 고려해 좀 더 다양한 학생들의 흥미와 수준에 맞는 콘텐츠를 더 만들었으면 좋겠다. - 강사가 아이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긍정적인 강화로 아이들이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할 수 있게 한 점이 좋았다.
-----------	--

4. 연구 결과

객관식 만족도 응답 결과, 다문화 수용성 향상 정도, 강사 열의, 수업 내용의 적절성, 수업 진행 과정, 프로그램 추천 여부 등에서 전반적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술식 응답 결과에서는 다문화이해교육에 대해 좋았던 점으로 다문화의 개념 설명과 활동적인 수업 내용에 대한 답변이 주를 이루었다.

찾아가는 다문화이해교육의 개선 방안으로는 서술식 문항의 수정·보완점 응답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도출하였다.

4.1. 학년 수준을 고려한 체계적인 교육과정 필요

부산시 찾아가는 다문화이해교육은 학년별로 수업이 이루어지고는 있지만, 두 학년씩 묶어 같은 난이도로 수업을 하고 있다. 이런 부분과 관련하여, 한 학년 낮은 학생들은 따라오기 어려운 점이 있음을 교사용 만족도 조사 서술식 응답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1·2학년 수업의 경우 2학년에게는 수준이 맞는 수업이었지만 1학년 수업으로는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다. 만족도 조사에 참

여한 총 15개의 학교 중 4곳의 학교에서 1학년이 수업을 하기에 단어가 어렵고, 한글을 쓰는 활동을 고려하여 다른 활동이 있었으면 한다는 응답 결과가 나타났다. 4곳의 학교가 아닌 다른 학교에서는 1학년의 수준에 알맞다는 평가도 있었지만 찾아가는 다문화이해교육의 특성상 한 명의 강사가 여러 학교를 방문한다는 점에서 여러 학교, 학급의 수준에 맞는 다양한 교안이 필요하다. 찾아가는 다문화이해교육은 다문화이해교육 강사가 PPT, 교안 등을 개인적으로 수업을 구성하는 경우가 많아 개인적으로 1학년에서 6학년까지 모든 학년과 수준에 맞는 교안을 구성하기에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또한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1차시 수업으로 다문화이해교육을 진행하지만, 학교의 요청에 따라 2차시 수업으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다. 이에 운영기관에서 학년 수준을 고려한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1·2학년 수업에서는 1학년의 경우 한글을 미해득하고 학교에 들어온 학생들도 있어 글을 쓰지 못하는 학생을 고려한 1학년 수업이 따로 필요하다는 응답이 있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글을 쓰지 않는 그림 그리기나 몸으로 할 수 있는 활동이 반영되어야 한다.

3·4학년 수업의 경우 수업 수준에 대한 응답은 거의 없었으나, 3학년과 4학년이 저학년과 고학년으로 구분되기 때문에 3학년 수업에서 저학년 아이들의 집중력이 낮은 것을 고려하여, 활동성이 높은 수업이었으면 좋겠다는 응답이 있었다. 이에 활동성을 반영한 체험 위주의 학습이 필요하다.

5·6학년 수업에서는 5학년 수업에서는 수업 수준에 대한 의견이 없었으나, 6학년 수업에서 다문화와 관련한 실제 문제 사례를 뉴스로 제시하여 학생들에게 문제의식을 심어주는 활동이 추가되었으면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6학년의 경우 중학생에 올라가기 전의 학급으로 몸으로 체험하는 활동을 포함하여, 토론과 같이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사고 능력을 기를 수 있는 활동이 필요하다.

4.2. 장기적 관점에서의 지속적인 다문화이해교육 필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찾아가는 다문화이해교육은 대부분 한 학기에 1차시로 진행되는 단기적인 교육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의 내용도 1차시 내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구성하고 있다. 초등학교 기준으로 40분이라는 시간의 제한 내에서 전달할 수 있는 다문화이해교육의 내용은 한정적이며, 이러한 제약에 따라 강사는 한 가지의 주제만을 선택하여 강의를 진행할 수 있다. 물론 그 한 가지의 주제를 효과성 있게 수업 시간 내에 전달한다면 의미 있는 교육이 되겠지만, 과연 한 학기에 1차시로 끝나는 연계성 없는 수업이 학생들의 다문화 인식 개선에 큰 효과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다. 특히 다문화이해교육은 학생의 다문화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인식 개선 교육이기 때문에 단순한 일회성의 교육이 아닌 지속적으로 학생들에게 노출 시켜 자연스러운 인식 개선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다문화이해교육의 방식은 단기적이고 효과성을 내기 어려운 방식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지속적인 다문화이해교육의 설계가 필요하다. 앞서 학년별 체계적인 교육과정이 필요하다고 하였듯이, 그러한 교육과정의 설정을 바탕으로 하여 한 학기에 여러 차시로 구성된 연속적인 교육을 진행하여 다문화이해교육에 필요한 주제를 순차적으로 수업할 수 있도록 구성이 필요하다. 아시아인권문화연대의 사례를 살펴보면, 지역사회에서 다문화이해교육을 2004년부터 진행해 온 아시아인권문화연대는 2015년 자유학기제 시범지역인 부천의 한 중학교의 1학년 2학기 사회과목을 맡아 수업을 진행하였으며, 2016년 2학기에는 세 학교의 사회과목을 맡았다. 시민권 일반, 학생 인권, 노동과 인권, 다양성과 이주민, 소수자와 평등, 성평등, 연대와 실천을 주제로 하여 교육을 진행하였다(임혜정 2017: 62). 이러한 사례처럼 다문화이해교육을 단순히 차별 금지, 소수자에 대한 배려 등의 시혜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학년별,

학기별로 학생들의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그에 따른 수업 내용을 연속성 있게 구성한다면 학교 교과과정 내에서 충실히 다루기 어려운 다문화 인식 개선에 관한 내용을 다문화이해교육 실시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김혜빈 2020: 83). 이러한 체계적이고 연계적인 다문화이해교육을 위해서는 다문화이해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중요한 인력인 다문화이해교육 전문 강사에 대한 양성과정과 보수교육 등을 통해 그들의 역량을 신장할 수 있도록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일회성의 사업으로 다문화이해교육이 진행된다면 수업의 전문성을 논하는 것은 어렵다고 볼 수 있다(박정미 2020: 55). 따라서 지속적이고 연계성 있는 다문화이해교육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학생들의 다문화 인식 개선에 더욱 효과적이라 기대할 수 있다.

4.3. 교사의 다문화역량 제고 필요

교사의 서술식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다문화이해교육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요구 사항이 나타났다. 다문화를 그저 외국과 한국의 문화 차이 혹은 다문화가정자녀라는 좁은 의미로 해석하여 보편적인 편견과 차별을 다루는 수업 내용을 지적하는 답변을 찾아볼 수 있다. ‘다른 문화권의 체험을 했으면 좋겠다’, ‘특정 나라의 문화 체험이 필요하다’ 는 등의 응답 결과는 다문화이해교육을 단순 문화비교 수업으로 이해하는 좁은 다문화 인식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답변은 일부 교사의 의견이며, 다양한 응답 결과를 통해 교사의 다문화에 대한 이해도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일부의 의견이 여전히 다문화를 외국의 문화로 한정 짓고 있는 시각을 보여주며, 이에 대한 교사의 다문화역량의 제고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초등학교 교사의 다문화역량은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이해하고 효과적인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하는 다문화 지식,

기술, 태도 등으로 정의할 수 있다(안병환 외 2013: 66). 여기서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은, 단일 학급에서 문화적 다양성을 이해하고 학습하는 것이다(Bennett 2011, 재인용).

초등학생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존재는 부모님 다음으로 담임교사라고 할 수 있다. 교사의 다문화 역량과 다문화에 대한 인식은 수업 내용, 교사의 언행 등에 그대로 나타나게 되고 이는 곧 학생들의 다문화 인식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 교사가 다문화와 관련한 전반적인 영역에 어떠한 지식과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는 고스란히 학교 생활 지도와 교수학습방법에 드러나게 되고 학생들과의 상호작용에 반영된다(박신영 외 2016: 255). 즉 교사의 다문화역량이 학생들에게 그대로 전달되기 때문에 교사의 올바른 다문화에 대한 이해와 높은 다문화역량이 학생들의 다문화 인식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교사의 다문화역량 제고를 위해서는 우선 다문화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다문화가 외국의 문화, 다문화가정자녀를 지칭하는 용어가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존재하는 다양성에 대한 개념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인식 제고는 교사 대상 다문화 연수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지만, 결국 연수를 듣는 교사의 자발적인 의지를 통해 개선 가능한 사항이다⁴⁾. 교사는 다문화의 개념을 더 넓은 관점에서 바라보고, 다문화를 타인의 문제가 아닌 우리 모두가 다른 문화를 가지고 살아가는 다문화적인 존재임을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강사가 진행하는 다문화이해교육의 주제와 학습 내용에 대한 인지가 필요하다. 학생들의 다문화 인식 개선을 위해 반편견, 반차별 등 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주제에 대해 수업 내용을 구성

4) 다문화 연수 경험은 초등학교 교사의 다문화역량 증진과 연관이 있다. 다문화와 관련한 교육 경험, 해외 연수 등의 경험이 있는 교사들이 경험이 없는 교사보다 다문화 지식, 기술, 태도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박신영 외 2016: 250). Spanierman(2011)은 다문화교육 및 연수 시간이 최하 26시간 이상일 때 다문화 효능감에서 가장 큰 효과가 나타났다고 주장하였다.

한다 하더라도, 한 시간의 수업으로 인식 개선을 완벽히 이루어내기란 어렵다. 이때 중요한 것이 담임교사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교사가 다문화이해교육의 수업 내용과 목표를 이해하고, 일회적인 다문화이해교육이 끝난 후에도 이를 상기시켜주고 다문화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면 효과적인 것이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부산시 찾아가는 다문화이해교육의 교사 대상 만족도 조사를 바탕으로 찾아가는 다문화이해교육의 개선 방안을 제안하는 것이 목적이다. 자료 수집은 2019년 찾아가는 다문화이해교육을 진행한 후 담임교사의 설문 조사를 통해 이루어졌다. 조사 기간은 2019년 4월 1일 ~ 2019년 11월 30일로 약 8개월 동안 부산의 초등학교 현장에 방문하여 설문 조사를 진행하였다. 설문지는 세부항목 별 평가 기준 5개의 객관식 문항과 3개의 서술식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객관식 문항에서는 대체적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여주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찾아가는 다문화이해교육의 개선 방안을 교사의 서술식 문항의 수정·보완점을 통해 도출하였다. 이에 따른 개선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년 수준을 고려한 체계적인 교육과정이 필요하다. 부산시 찾아가는 다문화이해교육은 두 학년씩 묶어 같은 수준의 다문화이해교육을 진행하고 있어, 저학년일수록 학년이 낮은 학생은 따라오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하였을 때, 강사 개인이 모든 학급을 담당함에 어려움이 있어 운영기관에서 학년 수준을 고려한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둘째, 장기적 관점에서의 지속적인 다문화이해교육이 필요하다. 한 학기에 일회성으로 진행되는 다문화이해교육으로는 학생들의 다

문화 인식을 개선하기에 부족함이 있다. 이에 따라 여러 차시의 다양한 주제 선정을 통해 연계성 있고 지속적인 다문화이해교육을 진행하여 효과성을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교사의 다문화역량 제고가 필요하다. 서술식 문항 응답 결과 다문화이해교육을 단순 문화 비교 수업으로 이해하고 외국의 문화 수업을 원하는 응답이 있었다. 이를 통해 교사의 다문화에 대한 좁은 인식이 여전히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 교사의 다문화 인식은 학생들에게 그대로 전달되고 학생들의 다문화 인식 형성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교사부터 다문화에 대한 올바른 개념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찾아가는 다문화이해교육에 참여한 부산시의 일부 학교를 대상으로 하여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고, 서술식 응답으로만 개선 방안을 도출하였기 때문에 모든 교사의 의견을 대표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찾아가는 다문화이해교육을 직접 진행하고 이에 따른 교사의 직접적인 서술식 응답을 받아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찾아가는 다문화이해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하여 실제적인 연구 자료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참고문헌

- 교육부(2020). 2020년 다문화교육 지원계획.
- 김남희·김혜빈(2020). 다문화이해교육 강사 대상 멘토링 프로그램 사례 연구, <다문화사회와 교육연구> 제6집, 다문화사회와 교육연구학회. 1~24쪽.
- 김창근 외(2016). 부산시 초등학생 다문화 감수성 향상을 위한 다문화이해교육 자료 개발, 부산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 교육정책연구소.

- 김혜빈(2020). 2015 개정 초등 5-6학년 사회 교과서의 다문화교육 내용 연구, 부산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혜숙(2020). 전국 시도교육청의 다문화교육 지원계획 비교 분석 연구, 서울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신영 외(2016). 초등학교 교사의 다문화역량에 관한 인식 분석, <열린교육연구> Vol.24, No.2. 241~260쪽.
- 박정미(2020). 다문화이해교육 운영 사례 연구, <한국언어문화학> 제17권 제3호. 37~65쪽.
- 법무부(2018).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 안병환 외(2013). 초등학교 교사의 다문화 교수 역량에 대한 인식 분석 연구, <다문화콘텐츠연구> 제15집, 중앙대학교 문화콘텐츠기술연구원. 61~86쪽.
- 은지용(2020). 한국과 미국의 다문화 교육 정책에 대한 비교 분석, <교원교육> Vol.36, No.1,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연구원, 193~220쪽.
- 임혜정(2017). ‘아래로부터의 운동’ 으로서 결혼이주여성의 다문화교육, 한국외국어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장인실 외(2012). 다문화교육의 이해와 실천. 학지사.
- 최영준(2018). 다문화교육 정책의 변화와 개선방안, <평생교육·HRD연구> Vol.14, No.2, 숭실대학교 한국평생교육·HRD연구소. 55~75쪽.
- 최우인(2012). 다문화교육의 현황 분석 및 개선 방안, 동덕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Bennett C. I(2011). *Comprehensive multicultural education*. Boston: Pearson.
- Donna M. Gollnic, Philip C. Chin(2012). 염현철 역, 다문화교육 개론. 한울.
- James A. Banks(2016). 모경환 외 역, 다문화교육입문. 아카데미프레스.

Spanierman L. B(2011). *Multicultural teaching competencies scale(MTCS):Development and initial validation*, Urban Education 46(3). 330~464쪽.

필자 소개

성 명 : 김혜빈
소 속 : 부산외국어대학교 일반대학원 다문화교육학과 박사과정
주 소 :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샘로 485번길 65 [우편번호]46234
전화번호 : 010-3828-5502
전자우편 : hyebin5180@gmail.com

성 명 : 김남희
소 속 : 부산외국어대학교 일반대학원 다문화교육학과 박사과정
주 소 :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샘로 485번길 65 [우편번호]46234
전화번호 : 010-2679-3827
전자우편 : kinegt@naver.com

투고일: 2020. 12. 27 / 심사일: 2021. 1. 4 / 심사완료일: 2021. 2. 18